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보호직 사회복지학개론 총평과 해설

<총평>

1. 난도 : 높음

2022년 4월 2일 실시된 국가직 보호직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은 이전 시험에 비해 높은 난도를 보였다. 공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8.1%가 이번 시험을 어렵다(혹은 아주 어렵다)고 평가해 2021년 국가직(34.8%)뿐만 아니라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된 2021년 지방직(54.3%)에 비해서도 더 높은 체감 난도를 보였다. 정답률을 기준으로 문항별 난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22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의 문항별 난이도

난이도	상	중	하
정답률	40%~60%	61%~80%	81% 이상
문항 수	5	6	9
문항번호	3, 7, 8, 18, 20	2, 4, 9, 10, 14, 16	1, 5, 6, 11, 12, 13, 15, 17, 19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3번(정답률 42.55%), 7번(60.18%), 8번(정답률 52.58%), 18번(53.50%), 20번(정답률 43.47%)의 다섯 문항이었다. 바로 이 문제들이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실력을 가르는 핵심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2. 출제영역의 변화 : 실천, 발달사 출제비중 매우 높음. 정책론 비중 매우 낮음

올해는 출제영역의 지각변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달사와 실천론 비중이 높고 역대 어떤 시험에서보다 정책론의 출제비중이 낮았던 특징을 보였다.

사회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은 2019년 이후 4년째 출제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높은 출제비중을 보여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2021년과 2022년 모두 전혀 출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올해 시험에서는 출제된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파트에서는 2021년을 포함해 통상 3~4문제가 출제되었지만 2022년 국가직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 이변을 보였다.

<표 2> 최근 4년 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에서의 단원별 출제 내용

굵은 고딕: 체감난도 top5 문항

	2022	2021	2020	2019
개념	제도 대 잔여	사회복지/사회사업	'사회적'의 의미	
발달사	구빈법 순서 발달사 종합 베버리지: 전제조건 <b>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b>	길버트법	1980년대 정책기조 발달사 종합	제3의 길
	지역복지 발달사 순서 평가제 도입	한국 2000년 이후		
가치	<b>정책의 가치 자유, 정의, 연대</b>	윤리결정(리머)	윤리강령	
발달이론			방어기제	
조사론	육구조사방법 종합 <b>조사론 개념 종합</b>	표집방법 유형 생태학적 오류	조사과정(순서) 측정수준	신뢰도 높이는 방법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한된 문항을 이용해 최대한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문항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문항이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아지면 응시자 입장에서는 개별 선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인출해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기존에는 ㄱㄴㄷㄹ 방식의 문제에서 앞의 ㄱ이나 ㄴ 정도만 읽어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①②③④의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올해는 최종 답을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 선지도 읽어야만 하겠끔 보기 구성에도 신경 쓴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간혹 이전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정말 너무 생각 없이 보기를 구성했다 싶을 정도로 한 두 지문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수준이 많았지만, 2022년 국가직 시험은 그렇지 않다.

### (3) 읽어야 하는 문제 텍스트의 증가 : 문항이 길어졌다!

5과목 시험 중 사회복지학개론의 특징 중 하나가 문제지의 전체 글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표 4〉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지의 글자 수

	2022년 국가직	2021년		2020년 국가직	2019년 국가직
		국가직	지방직		
글자 수 (공백 제외)	4,247자	3,174자	3,797자	3,108자	3,753자

2021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 비해 2022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문제의 글자수가 무려 1,073자가 늘었다. 작년 국가직 시험 기준 읽어야 하는 텍스트 부담이 34% 정도가 상승한 것이다.

시험은 ① 문제를 명확하게 읽고, ② 대응되는 개념을 적용해, ③ 정확히 답을 판단하는 세 단계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2022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출제위원들은 ①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을 늘리면서도 한 두 지문만 읽고 간단히 건너뛸 수 있는 문제 비중을 줄임으로써 “문제를 읽는” 능력을 전보다 비중있게 요구한다. ② 복합문제 수를 늘림으로써 답을 찾기 위해 각 문제에 적용해야 하는 대응 개념의 폭을 넓혔고, 각각의 선지에 대해 머릿속에서 대응되는 개념들을 빠르고 유연하며 정확하게 찾아야만 비로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 (4) 지엽적인 지문 구성

이전까지는 세세한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산과 지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2022년 국가직 시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러한 경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지형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를 묻는 지엽적인 내용을 곳곳에 배치했다. 8번의 가족문제 관련 이론이나 20번 ②번 선지의 ‘동질성 원리’ 등은 공무원시험보다 지엽적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이 짙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서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5) 난도 상향 전략의 특징 : (기존)소수 문제의 난도를 크게 상향 → (2022년 국가직)전체 문제의 난도를 조금씩 상향  
기존에는 일부 문제의 난도를 크게 올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내는 경향이 컸다. 2022년 국

가직에서는 몇몇 특정 문제에 한정해 난도를 높이는 전략이 아니라 전체 문제의 난도를 조금씩 상향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특별히 너무 어렵다 싶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이전의 기출 문제에 비해 다소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여느 때보다 체감난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의 정답률이 40% 이상이었고 최저 정답률도 기존보다 오히려 더 높았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시험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3번)도 정답률이 42.55%였다. 2021년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보자. 2021년 국가직 시험의 경우 최저 정답률이 31.1%였고, 그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2021년 지방직의 경우는 패턴이 또 다르다. 이 시험에서는 최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의 정답률이 25.5%였고, 그 외 난도 top5에 드는 문항들도 모두 40% 미만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표 5〉 2021년과 2022년 난도 top5 문항의 정답률

난도 순위	정답률		
	2022년 국가직	2021년 국가직	2021년 지방직
1위	42.6%	31.1%	25.5%
2위	43.5%	51.4%	30.0%
3위	52.6%	53.2%	35.9%
4위	53.5%	53.4%	38.2%
5위	60.2%	55.2%	38.2%

어렵다고 평가된 지난 해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보면, 난도 top5 문항의 정답률이 지난 해 지방직 문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체감난도는 2022년 국가직 시험이 지난 해 지방직보다도 높았다. 이는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의 수준과 난도가 상승한 출제경향의 변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종합적인 평가

시험 제도가 달라진 후 첫 시험이었던 2022년 국가직에서는 공통과목의 난도는 낮추고 직렬별 전문과목의 난도를 높인 특징이 강했다. 결론은 이렇다. 사회복지학개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5. 응시하신 분들, 다음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께

2022년 보호직 시험에 도전한 분들 모두 최선의 결과를 냈기를 바라고, 시험을 보기까지 수고해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바랍니다.

이후 지방직이나 국가직에 도전하기 위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2022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은 난도가 오를 거라고 예측되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그랬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해졌습니다. 탄탄한 실력을 구축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공부, 딱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전에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부 내용까지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복합교차 방식의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변화된 경향을 반영해 훈련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풀어보고, 실력을 메우고, 다시 도전하면서 도전할 때마다 실력이 성장하고 탄탄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갑시다. 힘차게, 당차게, 씩씩하게, 다시, 시작해봅시다. 파이팅!!

<문제와 해설>

**문 1.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자선,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②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가족과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제도를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답 ②**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를 노동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 ② 인보관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 ③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이다.
- ④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답 ①**

※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의 구호대상자 구분 (기준 : 노동능력 유무)

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강제노동) 혹은 교정원
노동능력 없는 빈민	구빈원 혹은 자선원에 수용하여 최소한의 구제 제공, 원외구호 허용
빈곤아동	강제로 도제로 보냄 혹은 위탁보호

**[오답 체크]**

- ② 자선조직협회는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 ③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질병보험(1883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질병보험이 도입된 다음 해인 1884년에 도입되었다.
- ④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재편되었다.

문 3. 집단사회복지실천단계를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할 때 초기단계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집단구성원의 선발절차를 정한다.
- ㄴ. 각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 ㄷ. 집단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 ㄹ. 집단규칙,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답 ②

※ 집단의 발달단계와 단계별 사회복지사 과업

	특징	사회복지사의 과업
준비 단계		① 집단의 목적 설정 ② 잠재적 성원 모집과 사정(집단성원 선별) → ㄱ ③ 집단의 지속기간과 회합빈도 정하기 ④ 집단구성하기 ⑤ 집단 환경 준비하기
초기 단계	· 높은 불안감과 낮은 신뢰감 · 비자발적 집단의 경우 강한 저항감 · 사회복지사-집단성원 간 일방적 소통의 경향이 강함	① 사회복지사 소개 ② 집단성원 소개 ③ 집단목적 소개 ④ 집단성원 역할 소개 → ㄹ ⑤ 개별성원 목표 설정하기 → ㄴ ⑥ 집단규칙 설정하기(비밀보장의 한계 등) → ㄹ ⑦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 격려하기 ⑧ 신뢰감 조성하기 : 불안과 저항 다루기 ⑨ 계약 ⑩ 집단운영 : 프로그램 활동
사정 단계		① 개별성원 사정 ② 전체 집단 사정 : 집단행동양식, 하위집단, 집단규범 등 사정 ③ 집단 환경 사정 : 기관, 기관 간 환경, 지역사회 환경 사정
중간 단계	· 표출된 갈등과 저항감의 해결 · 높은 신뢰감과 응집력 · 원활한 자기개방과 피드백 교환 · 적극적인 집단 참여	① 집단모임(회합)을 준비하기 ② 집단을 구조화하기 ③ 성원의 참여유도와 능력 고취, 응집력 촉진, 구성원 간 상호 피드백 교환 지지, 갈등과 저항 등 문제 상황에 개입 → ㄷ ④ 성원들의 목표달성과 적극적인 변화를 지지하고 원조 ⑤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⑥ 집단진행과정의 점검과 평가(모니터링)
종결 단계	· 양가감정(성취감과 상실감) · 소극적인 집단 참여	① 성취된 변화를 유지하고 일반화하기 ② 개별성원의 독립적 기능을 촉진하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③ 종결에 대한 감정을 다루기 ④ 미래에 대한 계획세우기 ⑤ 필요한 경우, 의뢰하기 ⑥ 평가하기

[오답 체크]

- ㄱ. 집단구성원의 선발절차를 정한다. → 준비단계에 해당
- ㄷ. 집단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 중간단계에 해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 7.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 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 ㄷ.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한다.
- ㄹ. 시민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답 ②

제3의 길 혹은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어느 한 편이 더 우선한다고 보지 않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적 통합성을 강조한다.

**제3의 길 혹은 사회투자국가에서 강조하는 점**

- 복지의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
-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적 통합
-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수혜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
- 기회의 평등

※ 사회투자국가 논의에서 강조하는 점

복지에 대한 투자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를 현재의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본다. 특히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미래에 이들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li> <li>• 따라서 시장실패자에 대한 사후적인 소득보장보다 <u>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기회의 평등에 주력한다.</u></li> </ul>
삶의 주기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과정에서 특정 기간에 나타나는 상황이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고용불안은 은퇴 후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은 현재의 상황 개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u>미래 상황의 개선</u>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li> </ul>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지급을 통해 위기를 주로 해결했던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통한 위기 해결을 강조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활성화(activation)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li> </ul>



**문 8. 가족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기능주의이론은 가족을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로 본다.
- ② 갈등이론은 가족 내 이해관계,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 ③ 상호작용이론은 가족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판단을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 ④ 사회구성주의이론은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분담을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해체라고 본다.

**답 ④**

상호작용이론은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분담을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해체라고 본다.

※ 가족 및 가족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입장 비교

구조 기능주의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이론에서 가장 핵심키워드는 '기능'</li> <li>• 질서, 안정, 합의, 통합, 균형, 조화 강조 (갈등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봄)</li> <li>• 기본가정 :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system)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사회는 균형과 안정을 유지함</li> <li>• 사회문제의 발생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체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 사회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 간주</li> <li>• 사회문제 해결 : 사회구조 전체가 아니라 하위체계가 개인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해결</li> <li>• 가족은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체계가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성, 역할 등을 교육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li> <li>• 가족문제 발생에 대한 입장 :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의 약화 → 가족구성원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원활한 가족기능 수행이 약화됨 → 가족구성원의 이탈이나 가족해체 등의 문제 발생</li> <li>• 가족갈등이나 해체를 역기능적인 것으로 간주함</li> </ul>
갈등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질서, 변화, 갈등, 투쟁 등이 중심 키워드</li> <li>•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 → 그러한 갈등이 바로 사회발전의 기초</li> <li>•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갈등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보지만,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봄</li> <li>• 가족문제 : 결혼과 가족제도 자체가 가부장제와 같은 남성지배적 불평등 관계/구조 → 가족 내 갈등은 그러한 불평등한 가족관계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 → 따라서 가족문제란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li> <li>• 가족갈등이나 해체를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함</li> </ul>
상호작용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기능주의이론이나 갈등이론은 사회 전체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이론이지만, 상호작용이론은 인간의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이론 →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학습하게 됨</li> <li>• 사회문제 :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상황을 문제로 규정 ('이게 정상이고, 이거랑 다른 건 비정상!')</li> <li>• 가족문제 발생에 대한 입장 : 가족문제를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나 범주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정상적 가족'이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가족을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하고 낙인찍게 됨</li> <li>• 모든 사회에서는 적절한 가족형태(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낙인찍게 되고 그러한 가족을 문제라고 본다는 것임</li> <li>•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판단에 가족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li> </ul>
사회 구성주의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구성에 관심을 가짐. 현실이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자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봄</li> <li>• 가족문제 : 가족체계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li> </ul>

**문 9. 핀커스(Pincus)와 미나한(Minahan)이 제시한 ‘체계들’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화매개체계: 비행청소년 A 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법원
- ② 클라이언트체계: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B 양
- ③ 표적체계: A 군의 문제해결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아버지
- ④ 행동체계: B 양의 문제해결에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는 단짝친구들

**답 ①**

①번에서 비행청소년 A 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법원은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이 아니라 콧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모델의 의뢰체계에 해당한다. 법원에 의해 의뢰된 비행청소년 A군은 응답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변화매개체계가 된다.

**문 10. 해결중심모델기술에 대한 예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외질문 - “딸의 가출 횟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줄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ㄴ. 관계성질문 -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악화가 계속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나요?”

ㄷ. 척도질문 - “내방하기 전을 0점이라고 하고 당신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10점으로 한다면 지금은 몇 점입니까?”

ㄹ. 대처질문 -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①**

제시된 질문은 모두 해결중심모델에서 사용되는 질문에 해당한다. 다만 ㄴ과 ㄹ은 질문유형의 이름이 잘못 연결되었다.  
 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악화가 계속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나요?” → **대처(극복)질문**  
 ㄹ.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 이것은 해결중심모델에서 개입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시작을 위한 질문**이다.

※ 해결중심모델의 개입기법

면담 전 변화 질문	상담 계획이 정해진 후 첫 회기 전까지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질문 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외 질문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 성공했던 경험을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예 “문제가 없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기적질문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와 별개로 해결책을 생각해보게 하여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실제 행동으로 해보게 하는 것 예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척도질문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하여 가족성원에게 자신의 문제 정도, 변화 정도, 변화에 대한 의지 등을 표현해보게 하는 질문 예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의 우울한 상태를 0점이라고 하고, 10점을 치료목표가 성취된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의 상태는 몇 점인가요?”

대처/극복질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질문. 문제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며,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까지 견뎌왔나요?"
관계성 질문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질문 예 "당신 아버지께서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문 11. 베버리지(W. Beveridge)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 ②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 ③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 ④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답 ③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을 제시했다.

• 암기팁 : 보검을 **고용**하면 **수당**이 많이 들어요.

[오답 체크]

베버리지가 강조한 것은 보편주의 원칙, **정액기여**와 **정액급여**, 자산조사 없는(즉, 선별 방식이 아닌) **최저수준 이상의 보편적 급여제**이다.

**문 1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면접에서 폐쇄질문보다 개방질문이 더 적절한 경우는?**

- ① 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 ②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 ③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
- ④ 면담 마무리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할 때

답 ③

③은 개방형 질문이 적절한 경우이고, ①, ②, ④는 폐쇄형 질문이 적절한 경우이다.

※ 사회복지실천 면접에서의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질문 유형	특징	예시
개방형 질문	·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 형태 · 클라이언트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그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할 수 있게 함 ·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폭넓게 들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이 적절	· 어떤 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 그 일에 대해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그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시험이 끝나니 기분이 어떠세요?
폐쇄형 질문	· 예, 아니오로만 대답이 가능 · 주로 <b>구체적인 사실</b> 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b>명백한 사실</b> 을 간단히 확인할 때에는 폐쇄형 질문이 더 적절	· 계획하셨던 대로 부모님을 찾아뵈었나요? ·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해본 적은 없으세요? ·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지요?

**문 13. 영국 사회복지발달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 법률을 제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주법	(나) 길버트법	(다) 작업장법
(라) 개정구빈법	(마) 스피햄랜드법	

① (가) → (다) → (나) → (마) → (라)      ② (가) → (다) → (라) → (나) → (마)  
 ③ (다) → (나) → (가) → (마) → (라)      ④ (다) → (라) → (가) → (마) → (나)

**답 ①**

- 암기팁 : 엘리자베스! 정작 길버트의 스펀햄은 공개 안해?
- 구빈법 제정 순서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정주법(거주지제한법, 1662년) - 작업장법(작업장테스트법, 나치블법, 1722년) - 길버트법(1782년) - 스피햄랜드법(1795년) - 공장법(\*구빈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순서문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같이 알아둘 것. 1833년) - 개정구빈법(1834년)

**문 14.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summative)평가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존속 여부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방식이다.
- ② 형성(formative)평가는 프로그램 계획과정이나 실행 중에 수행되는 평가방식이다.
- ③ 목표달성(goal attainment)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방식이다.
- ④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평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식이다.

**답 ④**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평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식이다. 이와 달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평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만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프로그램 성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문 15.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신건강사회복지란 정신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정신건강사회복지의 1차적 대상은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말하며, 가족은 1차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 ④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은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실천 방법뿐 아니라 집단, 가족, 지역사회 개입 등 통합적인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적용하여 개입한다.

**답 ②**

-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대상 : 1차적 대상은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그들의 가족이며, 그 외 정신건강의 예방이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일반시민도 대상으로 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음 규정도 알아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i> <li>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별업무는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li> </ul>
--

※ 정신건강사회복지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적·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응, 사회복지 지원 → 사회적 기능 + 삶의 질 향상</li> <li>지역주민 전체 : 정신건강 증진</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차적 대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li> <li>② 정신건강의 예방이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일반시민도 포함</li> </ul>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li> <li>개인과 가족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로 볼 수 있음</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기까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시설), 자살예방센터(법적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li> <li>그 외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li> </ul>
개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팀과의 협력 하에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활용</li> <li>개별수준 뿐만 아니라, 집단, 가족, 지역사회 개입 등 통합적인 접근</li> <li>클라이언트의 기본적 욕구 충족, 사회화 과정에서 결핍된 생활학습의 기회, 책임분담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훈련, 퇴행된 행동의 억제, 규범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민주적 태도 양성</li> <li>현실 지향적, 인본주의적, 민주적인 생활을 통한 학습활동에 중점을 둔 개입 실시</li> </ul>

문 16. 가족 대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의 개입이 시행될 수 있다.
- 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권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ㄷ. 가족조각은 공간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의 몸을 이용해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ㄹ. 탈삼각화기법은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딸이 자신을 편들도록 할 때,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딸이 부모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 ㄱ. 가족 대상 사회복지실천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실천활동으로, 가족 단위의 문제가 주요 실천대상이며,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단위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권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전문적인 권위란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말한다. 이는 전문적 지식

- 과 기술을 바탕으로 소속된 기관 및 클라이언트의 계약 등에 따라 부여받게 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에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 가족 대상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가족구성원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 ㄷ. 가족조각은 공간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의 몸을 이용해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정도구이자 개입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많이 사용된다.
  - ㄹ. 탈삼각화 기법은 다세대(세대간)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제3자를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분리시켜 가족 내에 형성되어 있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자이분화를 돕는다.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딸이 자신을 편들도록 하는 것은 삼각관계 형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딸이 부모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기법이 탈삼각화 기법이다.

**문 17.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증대시켰다.
- ②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1998년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 ③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 ④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목적은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답 ②**

19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평가의 실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평가**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3년마다 실시)
- 1999년 장애인복지관(36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대상으로 평가가 시작 (당시 평가실시 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적 :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편의 증대
- 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주관 : 보건복지부
- 평가의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2004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년) →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2020년 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09년 7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보장정보원 출범
- 2020년 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문 18.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에 더 가깝다.
- ㄴ. 롤스(J. Rawls)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 ㄷ. 에밀 뒤르켐(E. Durkheim)이 주장하는 유기적 연대란 사회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연대를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①**

- ㄱ. 소극적 자유는 간섭과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우파, 신자유주의, 반집합주의 등의 이념에서 선호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가깝다. 반대로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복지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개입이 가장 강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 ㄴ. 롤스의 핵심키워드는 원초적 상황(원초적 입장), 최소극대화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등이다. 롤스는 사회구성원 간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을 만들 고자 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부나 지위, 권력 등이 무작위로 배정되는(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배정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 놓인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최하층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원칙(최소극대화 원칙, maximin criterion)에 동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답 체크]**

- ㄷ. 에밀 뒤르켐(E. Durkheim)이 주장하는 **유기적 연대란 사회구성원의 상이성에** 근거한 현대사회에서 연대를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기계적 연대이다.

**연대(solidarity)**

사회복지의 대표적 가치 중 하나로,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

※ 뒤르켐이 제시한 연대의 두 가지 유형

기계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의 이해와 속성에 근거한 개인과 집단의 연대</li> <li>· 전통사회는 기계적 연대가 지배적인 사회로, 상호의존성에 기초해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을 할 수 있었음</li> <li>☞ 서구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노동자들의 <b>동질성과 동등성을 기반으로</b> 한 노동자연대가 강하게 잘 작동했음</li> </ul>
유기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구성원의 <b>상이성에</b> 근거한 연대</li> <li>·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차이(상이성)에 근거한 유기적 연대가 필요함</li> <li>☞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의 근거가 희박해졌고, 이주노동자 등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이 각자 존재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과거와 같이 동질성에 근거한 노동자연대는 어려워짐.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li> </ul>

**문 19.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록은 개입한 사례의 첫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목표달성 여부와 성과 등을 남겨 문서화해야 한다.
- ②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슈퍼비전의 유용한 도구이다.
- ③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
- ④ 기록은 사례관리, 의뢰 및 전문직 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답 ③**

사회복지실천 활동에 대한 기록은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며 때로는 치료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집단활동 참여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내용을 집단 성원에게 배포하여 그들이 기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서비스 과정과 진전 상황에 대한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치료적 목적을 지원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 및 알 권리 존중과 관련되는데 최근에는 클라이언트나 가족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록의 목적과 용도**

- 사회복지실천 활동 문서화
-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 및 개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 서비스 결정과 행동의 합리적 근거 제공
-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기준 준수 증명자료
- 서비스 과정과 결과 모니터링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재원 확보의 근거
- 사례의 연속성 유지
- 클라이언트와 정보 공유
- 전문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
- 행정적 지도감독 지원(=슈퍼비전 활성화)
- 실천자의 전문적 발전 지원(=교육적 도구로 활용)
- 행정과 조사연구의 자료

**문 20.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에 비해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은 표집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 ②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관찰자기법(interobserver reliability)이다.
- ③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는 서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④ 독립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화할 수는 없고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적용할 수 있다.

**답 ②**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반분법이다.



**신뢰도**

측정의 신뢰도란 측정값의 일관성 혹은 안정성을 의미

※ 신뢰도 측정방법

재검사법	·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 측정
복수양식법	· 동일한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유사한 양식의 측정도구로 측정 · 대안법, 유사양식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불림
반분법	· 동질성의 원리(하나의 개념을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하더라도 상이한 문항들 사이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정도)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결과를 비교
크론바 알파계수	· 반분법의 단점(단일의 신뢰도 계수를 구할 수 없음)을 보완 ·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출

※ 신뢰도 확보를 위한 원리

안정성	· 한 가지 측정도구를 가지고 반복해서 적용할 때 나타나는 측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 · 반복된 측정의 결과를 비교 → 검사-재검사법에 해당
동등성	· 동일한 현상을 측정함에 둘 이상의 측정도구를 사용할 때 이들 측정도구 간의 동등성이 곧 신뢰도 · 측정도구가 겹으로는 다를지라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원리 → 복수양식법에 해당
동질성	· 측정도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이 동일한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원리 → 반분법에 해당